히가시노 게이코의 소설을 나는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 처음 접했다. 300페이지 가량 되는 이 책을 읽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소요되지 않았다. 그만큼 독자를 몰입하게 하는 문체와 스토리가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단면적으로 이 소설만 놓고 봐서는 그가 왜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책의 프롤로그는 범인이 누구인지 미리 알려주고 범인이 밝혀지는 과정을 보는 한 편의 진부한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특히 강도가 나오고 강도의 우두머리인 후지의 부재가 지속되고 짜여진 듯한 강도들의 행동에 책의 맨 마지막장으로 넘기고 싶었다. 마치 범인은 미리 제시할 테니 각 인물들을 주시하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가 아닌 전체의 인물을 보라고 안내하는 것 같았다.

**시작을 알리는 무대 : 모리사키가의 별장**

소설의 시작과 끝은 모리사키가의 별장에서 시작한다. 죽은 도모미의 부(父)인 모리사키 노부히코의 초대로 친척 일가와 비서 그리고 도모미의 약혼자였던 다카유키까지 이 별장에 오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도모미를 추억하고 게이코를 통해 도모미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이 장은 도모미의 의문의 죽음을 푸는 첫번째 힌트다.

이 부분에서 도모미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누군가들의 의도가 분명하게 보인다.

**게이코와 레이코를 통한 독자의 추리**

게이코는 소설가이고 레이코는 노부히코의 비서다. 게이코는 계속해서 도모미의 죽음과 진통제가 들어있는 필케이스를 먼저 언급한 인물이다. 또한, 탐정 같은 비서인 레이코가 노부히코를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이야기는 극으로 치닫게 된다. 다카유키를 사랑해 도모미를 시기하고 그를 죽였던 유키에를 부정(父情)으로 용서할 수 없었던 노부히코는 유키에도 죽였다. 이 전개로 독자들은 도모미의 죽음은 유키에가 가진 사랑의 잘못된 표출로 인한 것이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던 노부히코는 복수심으로 유키에를 살해했고 그리하여 노부히코가 자살을 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듯 하다. 작가가 뻔한 함정을 둔 것이다.

**잘 짜여진 각본의 강도와 경찰**

강도와 경찰은 엑스트라로써 이야기의 중심에 다카유키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인물들이다. 또한 앞으로의 소설의 내용과 추리들이 모두 강도를 통해 이어 나간다. 산장 안의 인물들은 모두 다카유키가 도모미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는다. (모두 짜여진 것이지만) 그래서 더욱 더 다카유키가 범인인 것처럼 보였다.

또한 강도들은 중심을 흐렸다. ‘누가 도모미를 살해했는가’가 중심이 아닌 ‘이들은 어떻게 강도에게서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강도들을 잡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게 한 것이다.

**왜 가면 산장인가**

이 소설의 인물들 모두가 보이지 않은 가면을 쓰고 각자 연기를 했다. 이 가면을 통해 도모미의 죽음의 실마리를 잡았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독자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독자들은 그 가면 안을 추리하고 특정 인물들의 추리와 극의 전개를 통해 범인을 찾는데 꽤 흥미가 있었을 것이다.

다카유키는 ‘변질된 사랑’과 ‘가면’ 쓰고 있다. 그 마음 안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 자기 자신도 손 쓸 수 없을 만큼의 ‘악행’의 파장을 부르게 되고, 그 ‘변질된 마음’까지 보듬어 희생한 도모미의 ‘진실된 사랑’을 알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이기적이고 간사하고 악한 내면의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묘사한 것은 아닐까.